보살 정신 있는 정치인을 선택하라

현불논단



이성운 교수
동방문화대학원대학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이제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에 나설 후보자 선출을 위한 소식이 연일 뉴스를 장식한다.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는 이들은 대개 정치적 신념에 따라 정치 신념 공동체인 정당에 가입하여 그곳의 대표로 선거에 나서거나 특정 소속 없이 선거에 나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정치를 한다.

정당에서는 정당의 후보자들이 해당 정당의 신념과 일치하는지, 선거에 나섰을 때 당선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등을 검증해 선거에 나설 대표를 선출하다 보니 다양한 이슈가 뉴스를 장식한다.

전문가들은 보수나 진보의 신념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이들이 아닌 중도층이 대개 선거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고 한다. 캐스팅보트가 중요하다고 들린다. 자신이 지지하는 진영의 정치 행위는 모두 옳고 상대방은 절대 악이라고 몰아가려는 경향을 보이는 이들이 양 진영에 적지 않은 현실에서 볼 때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공인의 자세와 선택에 관한 불교의 관점은 어떨까. 사회 성립이나 지도자 선출에 관한 불교의 견해는 〈악간냐 숫따〉에서 조금 확인이 된다. 경전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공동 소유의 토지가 개인 소유로 되어 사유 재산이라는 관념이 발생한 다음 도둑질이 발생하자 그릇된 행위를 하지 말자고 약속하였다. 그러

불교적 복지국가 실현하는 전륜왕
경전에는 '富 분배하는 리더' 묘사
나눔·배려 체화된 후보 선출해야

나 그걸 어기는 이들이 늘어났다. 약속을 어기는 이들을 비난하고 때리는 처벌이 일어났고, 그 기준을 결정하고 도덕의 보호자로 활동할 사람을 선출하고 그들에게 약속을 어긴 이들을 징벌하게 했다. 이렇게 선출된 이는 '위대한 자'라고 불렸고, 초원의 왕이었으므로 '크샤트리아'로 불렸으며, 정의를 베풂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환대받아 '라자'(즐거워하는 자, 왕을 의미)로 불렸다. 이렇게 해서 통치라는 관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선출된 주민의 대표 '라자' 공인은 정의를 실현하도록 사회의 구성원이 선출한 자일 뿐이고, 국민이 왕(공인)에게 세금을 바치거나 내는 것은 사회 정의를 실현한 데 대한 보수할 뿐이다. 아주 이런 시기에 주장된 사회계약론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적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이상적인 왕을 전륜왕이라 하는데, 〈전륜왕사자후경〉에 의하면, 전륜왕은 정신과 물질 또는 도덕과 경제라는 양면에서 사회의 정의, 평등, 화합을 실현하는 정신적 지도자인 동시에 부(富)의 분배자라고 한다. 분배의 공정은 왕이나 공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선출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의 정책을 실행할 법안을 만들고 고친다. 그 법안에 의해 국민의 일상생활은 영향을 받는다. 국민 대표들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바람직한 사회를 이루려면 우리나 우리의 대표들에게 바람직한 삶의 길로, 불교에서는 보살의 길을 제시한다. 보살은 깨달음을 추구하며 나보다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다.

종교의 유무나 피차를 떠나 화려한 언어의 성찬이 아닌 견해가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서로 돕고 나누는 삶이 체화된, 보살의 정신이 있는지 하는 것이, 불자가 선거에서 국민의 대표를 선택할 때 제일의 기준이어야 하지 않을까.

민주주의 위협하는 '딥페이크'

세간과 출세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언론의 선거보도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최근 딥페이크로 제작된 소위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이라는 가짜 조작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는 허위 연설을 담은 딥페이크 영상은 발전한 기술의 오용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의 혼란과 위험 수위가 어느 정도로 높아졌는지를 가늠하게 해주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해 실제와 비슷하게 조작된 가짜 동영상 또는 오디오를 말한다. 고도화된 기술을 이용해 현실적이고 신뢰할만한 결과물을 제작해내어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거나 허구 정보를 실제로 발생한 사실로 인식하게 만든다. 특히 AI 딥페이크는 제작이 손쉽고 가짜와 실제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왜곡된 허위 정보를 담는다는 점, 전파의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선거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금지하는 기술적 조치와 강력한 처벌 등의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 가짜 딥페이크 영상 논란
선거 등에 악영향 미치 가능성 높아
美 등 방지책 마련… 우리도 대비를

선거 과정에서 딥페이크는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선거 캠페인 중에 후보자나 정치인의 가짜 동영상이나 가짜 음성이 유포되면 당사자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허위 정보가 선거 캠페인을 방해하고 정당한 선거 과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

또한, 딥페이크는 선거 보도의 신뢰성을 직간접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 가짜 동영상이나 오디오가 언론에 공개되면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이 증폭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정치적 선동이나 선거 캠페인을 목적으로 딥페이크를 악용하는 경우,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정책, 법제, 교육적인 측면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딥페이크를 검증하고 탐지하기 위한 기술적 방어 수단을 강화하여야 한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통해 AI 제작 콘텐츠에 별도 표시를 의무화하였고,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AI 콘텐츠 식별장치를 강화하도록 한 바 있다. 미국의 IT기업들은 AI로 만든 창작물을 식별하기 위한 워터마크를 도입하였다.

선거 시기에 특히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여 대중들이 디지털 윤리의식을 키우고, 딥페이크를 식별하고 의심하는 역량을 키우도록 하여야 한다. 선거 국면에서 딥페이크의 도전과 유혹은 성큼 다가온 AI시대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하나의 시험대가 되가 될 전망이다.

社 說

송현광장을 그대로 놔둬라

지난해 1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현광장에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불교계 안팎에서는 "이승만기념관 건립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 태고종 중앙종회 등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해 "한국불교를 분열시키고 박해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 추진은 한국불교에 대한 큰 모욕"이라고 성토했다. 결국 박민식 국가보훈부 전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입지와 관련해 정해진 바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고,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불과 세 달여 만에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송현녹지광장 부지에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깃털처럼 가벼운 게 정치인의 말이라지만, 이것은 가벼워도 너무 가벼운 것 아닌가. 무엇보다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이라는 민간기구가 추진하는 기념관을 공공부지에 두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2월 2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승만기념관 건립이 강행될 경우, 오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와 관계 단절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불교계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념관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종로의 얼굴을 바꾼 송현광장을 오롯이 시민의 곁에 있도록 해야 한다. 누구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오 시장은 알길 바란다.

저출산 극복, 불교계도 나서자

2월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줄었다. 2017년 4분기에 처음으로 1명을 밑돈 분기별 출산율은 6년 만에 0.6명대까지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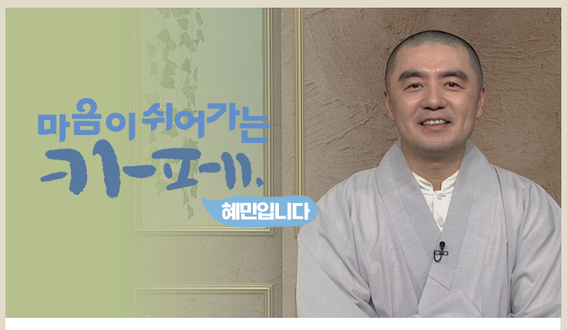
영국 BBC는 한국의 저출산 요인으로 과도한 노동 강도,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 비용, 시대착오적 여성상을 꼽았다. 실제 인터뷰를 한 시민은 "어릴 때부터 20대까지 공부하며 너무 지쳤다. 한국은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2월 28일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내놓은 해법은 주목할 만 하다. "극심한 경쟁사회에서 자란 청년들이 불안을 느끼고 자녀 양육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진단한 진우 스님은 경쟁 위주의 교육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경쟁에 내몰려 순위 싸움을 해야한다. 이 상황에서 인성교육은 뒷전이 됐다"며 "인성교육을 통해 타인과의 교류와 교감, 이타심 그리고 생명존엄성과 가족의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질적 풍요가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과도한 양육비용과 교육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경쟁과 서열화된 교육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선명상 등을 통한 인성교육은 불교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다. 저출산 극복에 이젠 불교도 나서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한국불교의 미래 BTN 불교TV
초심자부터 참선 수행자까지
모두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신규 프로그램



마음이 쉬어가는 카페 혜민입니다
방송시간 : 매주 (월)12:00, 22:30 / (토)19:30



송담스님의 이뭣고
방송시간 : 매주 (수)19:00 / (목)08:30 / (일)21:00



불교사용설명서
방송시간 : 매주 (금)09:30, 21:30 / (일)22:00



전설의 법문
방송시간 : 매주 (금)12:00, 23:15 / (일)13:0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